



## 제2분과

건설 · 안전 · 방재 · 교통



글 | 金學淸  
(Kim, Hak Chung)

- 토질및기초/토목시공 기술사
- 한일기술사교류위원회 위원
- (주)신우지오엔지니어링 사장

E-mail : hcksw@nate.com



▲ 제2분과 기념촬영

제2분과는 13:30~17:30까지 대구 EXCO 323-B호실에서 진행되었다. 좌장에는 한국측 김두환(화공안전기술사), 부좌장은 일본측 曾武川淳(SOMUKAWA ATSUSHI; 공기조화기술사)가 수고해 주었다. 발표자는 한국 측 3명, 일본 측 2명 총 5명이었으며, 30분 동안 통역을 포함한 발표시간과 10분동안 질의응답이 있었다. 중간에 coffee break는 1회 가졌고 제2분과에 참석한 인원은 대략 80명이었다.

첫 번째 발표는 필자의 발표였다. 지하철 9호선 가시철 설계 연구란 제목으로 지하철 9호선의 ○○공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가시철 설계에 대한 기본 컨셉과 지반조사, 설계 등에 대하여 지반조건과 주변지형, 지물, 지하매설물 등에 따른 설계 상세내용의 결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질의응답시간에는 강관버팀보 시공실적이 민간부분에는 많은데 서울지하철에는 아직 사용실적이 없다는 내용, 그리고 주변건물의 안전과 지반보강과 차승능력 향상을 위해 전 구간 마이크로시멘트 그라우팅을 채택했다는 내용의 질

의응답이 있었다.

두 번째 발표자는 増子 邦宏(MASHIKO KUNIHIRO ; 건설, 응용이학, 종합기술감리 기술사)의 「세계일주 크루즈와 Project Management」란 제목으로 발표자의 2011년 1월 23일부터 4월 18일까지 86일간 세계일주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면서 느낌 점을 Project management 기법으로 해석하였다. 이번 cruise는 저가의 대중적 상품(총 100만엔)이었으며, 아름다운 노년을 보낸다는 층과 자신을 발견하려는 젊은 층이 주류였는데 750명 승객은 거의 다 일본인이고 간부직원은 유럽인이었으며 선내 공식어는 일본어와 영어였다. 선내에서의 운영 실태와 정보관리, 안전관리, 항해 중 승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인생설계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세 번째 발표자는 강미진(매경안전환경연구원; 화공안전) 기술사로서 「한국의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많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고 2005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년과 2010년에 실시된 대학,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이나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율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안전관리 조직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법의 집행과 감독업무를 위탁 받아 시행하는 전문기관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질의응답에서는 대학에서 안전관리 위원장의 선임과 소속, 자격 등에 대한 질문으로 총장, 부총장이 위원장이며, 관리자 소속은 시설팀장으로서 기사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아 관리자가 된다는 답변과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 연구소에 대한 구분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소는 모두 본법에 따라 안전관리 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분과별 발표가 2시간 정도 진행되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위한 coffee break가 20분정도 있어 잠시 쉬었으며, 많은 방청객들이 명함을 나누며 인사하였다.

네 번째 발표자는 磯打 千雅子(ISOUCHI Chikako : 종합기술감리)기술사로 「감재대책 · 재해복구에 있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계속계획(BCP)과 지역계속계획(DCP)의 본연의 모습」으로 재해나 사고 등의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산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업의 연속성과 조기복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할 행동이나 긴급 시 사업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 등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참가자 중 지역사회에 정통한 건설업체가 하여야 할 역할이

크며, 일본 시고쿠(四國) 지역에서 실시한 협의회의 소개가 있었다.

질의응답에는 민간주도 BCP(사업계속계획)의 시작시점은 2005년 일본정부 내각부에서 정부재정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BCP협회 활동과 평택시에서 현재 도입중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발표자는 류성호((주)건일엠이씨 방재연구소장/건축기계설비·소방)기술사의 「연기역류방지를 위한 부속실 제연설비의 기류특성에 관한 연구」로 고층건물의 증가와 화재사고, 특별피난구역, 그리고 고층건물의 제연설비로 계단실과 그 부속실 등에 대한 최소 공간 확보의 필요성 등의 설명과 부속실에서의 기류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속실 바닥 면적이 4㎡이상인 경우 역기류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최소 설치 기준으로 하여야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를 모두 마치고 제2분과의 좌장, 부좌장, 발표자 5명, 그리고 통역으로 수고한 유지선(일본어통역사/서울외국어대학)씨와 기념사진 촬영을 하였다.



▲ 제2분과 발표 전경

〈원고접수일 2011년 12월 14일(수)〉